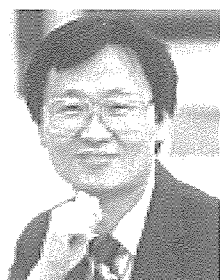


IT 등 6대 전략분야 2005년 18만명 부족 관련법 개정, 해외두뇌 유치 적극 나서야



李在成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교수)

선진국 과학기술직 선호도 낮아

이공계 대학을 지망하는 고교 수험생들의 수가 지난 3년째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나마 그 적은 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집단의 학생들이 보다 안정된 직업을 찾아서 의대, 치대로 몰려 급기야 금년에는 소위 일류대학교들도 이공계 학과는 정원미달을 염려해야 하는 반면 의대, 치대는 대학의 명성이나 교육환경과는 상관 없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물론,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들이는 노력에 비해 보수나 사회적인 위상이 평범한 과학기술자가 젊은이들의 직업적 선호도면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에 더하여, 고교교육, 대학입시 등 제도적인 문제와 최근 5년간의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변화가 너무 급격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정보통신 기술자를 필두로 많은 수의 실력있는 우리의 과학기술자들이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취업에 나서고 있다. 세계는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경쟁을 넘어서 이의 패권화가 진행되고 있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보다 많은 과학기술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 현실은 그 반대로 나아가고 있어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 특히 첨단기술관련 인력의 수급문제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지식경제에서 창조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는 필수적이고, 핵심 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그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경제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교육, 입시 등 제도적인 문제, 국민의식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와 아울러 외국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는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 전통적인 단일민족 국민으로서 외국인의 국내 취업에 대해 익숙하지 못한 일반적 인 국민 정서로 볼 때, 이 대안이 공감대를 넓혀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의 확보가 곧 기업의 생존과 국가경제 미래와 직결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머지 않은 장래에 외국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문제는 우리의 호, 불호와는 상관없이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필연적인 선택이 되리라 예상된다. 정부 역시 2005년까지 정보통신(IT), 생명기술(BT), 환경기술(ET)을 포함한 6대 전략분야에 대한 부족인력 18만6천명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최근 발표하면서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미국, 구소련 붕괴후 4만명 유치

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 독일 과학

자들을 나누어 데려가서 세계 과학 기술계의 선도적 위치를 굳힌 미국과 구 소련의 경우는, 외국 과학기술자의 유치에 그 나라 발전에 끼칠 수 있는 지대한 영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역사적 예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확실한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향유하고 있는 미국의 발전에는, 이민국가로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해외 인력을 유치할 수 있었음이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 유럽, 그리고 비교적 폐쇄적인 일본에서도 과학기술자는 최우선적인 이민 허용 대상자로서 우대하고 있고, 호주가 한창 백호주의를 표방하던 시절에도 과학기술자는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이민을 받아 들였다. 또한 최근에는 구 소련이 붕괴한 후 약 6만명의 과학자가 소련을 떠났는데 이 중 약 4만명을 미국이 흡수하고 2만 가까운 인력을 일본이 흡수했다는 설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련 붕괴 후 그 뛰어난 기초기술을 흡수하기 위하여 부산한 왕래는 있었으나 과학기술자의 활용에 있어서 단 하루만 왔다간 사람까지 다 합쳐도 천명이 안 된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과학기술을 단 시일 내에 한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큰 기회를 한번 놓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아직도 중국과 동남아, 그리고 동구권 나라에 기초과학 분야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인력들이 많아서 우리의 잠재적인 인력공급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대로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우리도 구 소련 과학자를 유치, 활용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이미 올리고 있다. 기술개발의 속도는 차치하고 그 비용만을 고려할 때도, 이러한 기술개발을 우리 자체 인력으로만 수행할 경우와 비교하여 1/3 정도의 낮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국들도 고급 기술인력의 부족을 느껴 자국 내 부족한 고급인재를 해외에서 확보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가장 심한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IT분야의 경우 현재 미국은 60만명, 유럽 연합은 1백20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 기술자들도 일부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우수한 해외인력을 국내로 유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먼저 시급한 것은 해외인력의 유치가 용이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는 단기간 유치를 위해서도 그 주 대상자가 되는 러시아, 중국, 동구권 등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너무 까다롭다. 과거 냉전시대부터 내려온 법, 제도 혹은 관행의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기유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오히려 장려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및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서,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을 국제시장에서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구 유치의 경우는 그 사회적 인여파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보다 선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겠다. 그러나 정말 우수한 인력으로서 필요성이 절실하고 본인이 영구유치를 희망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이민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들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의 경쟁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단지 그 자격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정확한 수급 예측에 따라 그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이미 상당히 유연하게 되어있는 이민법을 손질하여 외국 기술자들의 영구 유치를 현재 수준보다 대폭 늘리기 위한 법안을 상정 중이다.

외국 유학생도 유치, 활용길 열어야

두번째는 국내의 대학에 외국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훈련된 인력의 단기유치는 당장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필요한 시기에 찾는 일이 쉽지 않다.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여 필요한 분야의 교육을 시킨 후 국내에서 활용할 경우, 그 자질의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고 그간 맺어진 학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당한 소속감을 느끼는 친 한국화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들이 대학원 학생시절에는 연구 조원으로서 국내 대학의 연구개

발에 기여할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우수한 학생의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한시적 혹은 영구적인 유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로가 바로 미국이 지금까지 자국에서 부족한 과학기술계 학생과 인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그 나라에 체류하며 직접 그 나라 산업에 기여하거나 귀국하더라도 유학한 나라에 대하여 정서적인 연대감을 가지게 되어 많은 간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은가? 다행히 현재 국내 여러 대학들이 캠퍼스 국제화 일환으로서 외국 학생들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부족 인력의 확보라는 측면 이외에도 캠퍼스에서 상당수의 외국 학생들과 생활하게 되면 내국인 학생들에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외국어 사용이 자연스러워지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국제감각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급속히 국제화, 세계화 되어가고 있는 금세기에 활동할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덕목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치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단기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는 대단히 친절하지만 영구유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단일민족으로서 장구한 세월을 우리끼리 살아온 역사적인 배경도 있

졌고,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복잡 대어 우리만 살기도 어려운데 외국인 하고도 취업경쟁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을 것이다.

또 독일의 터어키인들이나 미국의 중남미인들처럼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수입된 노동인력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경우를 상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유치는 단순 노동자의 수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학기술자의 연구 결과나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화 되면, 때로는 우리 국민 수만 혹은 수백만명의 생계에 기여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 그들의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고등 교육과 높은 문화적 훈련을 받은 고급인력으로서 훌륭한 시민이 되기에 손색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가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고, 살기에 편하고 매력적인 장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 주어도 우수한 인력들은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폐쇄적인 사회는 그 발전이 늦고 중국에는 도태되는 경우도 많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날로 좁아지고 있고, 국경의 개념도 점차 없어져 가고 있으며, 인적 교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적 이동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우리 주위에도 외국인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에 우리는 점차 익숙해져야 한다.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의 국내 유치가 바라는 바 성과만 있을 수는 없고 그에 따른 고용문제, 문화적인 충돌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 경쟁력이 상승하고 전 국민이 보다 잘 살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라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정사실로 수용하여 그 나름대로의 해결점을 따로 찾아야 할 것이다.

기왕에 이 길로 가야 한다면 이로부터 얻을 것은 최대로, 문제점은 최소로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책 당국자들은 지금 머리를 맞대고 향후 우리나라 해외인력 수입방안에 대한 상세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각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국내에서만 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세계를 상대로 한 헤드헌팅(head hunting)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러시아, 중국, 동구권 국가와 동남아 국가들이 주 공략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도 역시 이 지역의 인력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하겠으나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판매시장 확보를 위해 이 지역에 이미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리라 고 생각된다.